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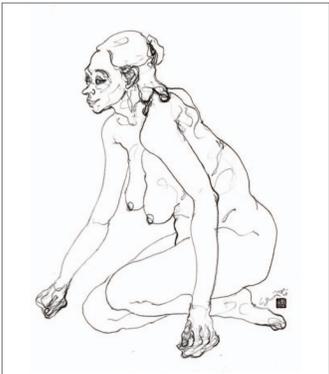
“드로잉 역량 강화에 가장 좋은 것은 크로키”

CULTURE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토만사’ 31회 정기회원전...누드크로키 시연회 진행 전문모델 포즈 관찰하며 회원들 스케치에 몰입 작업 내달 7일까지 광주시립 금남로분관사...250여점 출품

26일 토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크로키 현장은 쭈뼛은 듯 고요했다. 이날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일반 참여 남아 신청자 50여명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전문모델을 뿔 둘러쳐 조금 떨어진 채 앉아 저마다 누드크로키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포즈와 형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떨치지 않아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느라 전시장으로 드나드는 목소리가 들렸을 법한데 미동도 없이 작업에만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가끔 모델이 포즈를 바꿀 때마다 다시 관찰하고 화폭에 담느라 분주했다.



고요로 활동 중인 이근표 작 누드크로키

이날 누드크로키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전시장 풍경이다. 광주 대표적 누드크로키 모임인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약칭 토만사, 회장 정용규)이 제31회 정기회원전을 맞아 마련한 공개 누드크로키 시연회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이처럼 토만사가 마련한 공개 누드크로키 시연회는 최근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가운데 열렸다. 여체의 심오한 곡선 위주의 선들을 스케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델의 그날 심리까지 읽어내야 하기에 그만큼 누드크로키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떤 이는 색채가 없기에 그림이 덜 완성됐다고 보지만 크로키는 그 자체로서 모든 표현을 담아내야 하기에 고도의 집중력과 표현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기본기가 없으면 크로키 작업의 깊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누드크로키를 거쳐 화가로 데뷔하는 사람들이 많다

는 후문이다. 이를테면 파리의 누드크로키 아카데미인 ‘그랑 쇼미에르’까지 전시 입구에 내걸린 토만사 소개 글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랑 쇼미에르’가 크로키의 산실이자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이들이 화단에 데뷔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누드크로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의미다.

누드크로키 분야에서 토만사가 광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1993년 4월 창립돼 광주 최초로 누드크로키 전시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실은 토만사의 첫 출발은 1988년 정 회장 등 6명이 모여 활동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모여 매주 한번도 거르지 않은 채



광주 대표적 크로키 모임인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이 제31회 정기회원전을 맞아 공개 누드크로키 시연회를 지난 26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사에서 성황리 진행했다.

연간 50여회 안팎의 크로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 회원전과 특별초대전 등을 통해 작품 발표를 꾸준히 해왔다. 회원은 현직 화가를 포함 백제예술대 김재현 전 총장 및 국립광주박물관 김승희 전 관장을 비롯해 건축사와 의사, 사업가, 교사,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26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원년멤버로는 정용규 회장만 남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토만사 관계자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드로잉은 밥과 같은 것으로,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작가는 드로잉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하는 한

편, 누드크로키가 작가의 기본이 되는 드로잉의 역량을 키우는데 절대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정용규 회장은 “일반 시민들이 밥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작가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 그것이 드로잉이다. 드로잉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있어 가장 좋은 게 크로키라고 볼 수 있다”면서 “매주 5분마다 주기적으로 포즈를 바꾸는데 그 포즈에 관련한 처음과 끝맺음을 해야 하니까 5분 동안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만사는 이번 정기회원전과 공개누드크로키 시연회가 예술의 한 장르인 누드크로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새로운 형식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가 되고, 누드크로키의 확산을 유도하며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토만사의 제31회 정기회원전은 지난 24일 개막, 오는 5월 7일까지 출품회원 24명의 크로키 250여점이 출품된 가운데 계속된다. 회원들은 각 개인별로 10점씩 출품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어린이날 만나는 특별한 ‘공연 선물’ 어때요

광주시향, 내달 2~4일 키즈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 광주에당 기획공연 아트워크 ‘디즈니 인 콘서트’ 등

어린이날을 맞아 온가족을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키즈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4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한 무대다.

클래식 음악과 샌드아트, 내레이션이 결합한 공연으로, 광주시향의 연주(지휘 김영인)와 함께 샌드아트 작가 박은수, 내레이션 박경태가 참여한다. 샌드아트와 내레이션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어린이들이 공연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꾸민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호두까기인형 모음곡’에서는 ‘작은 서곡’, ‘행진곡’, ‘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 춤’, ‘아라비아 춤’, ‘중국 춤’, ‘갈래피리의 춤’, ‘꽃의 왈츠’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피터와 늑대’는 어린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악기별로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독특한 작품으로, 늑대, 오리, 피터 등 각 캐릭터가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등의 악기로 표현된다.

공연 중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샌드아트는 이름

다운 그림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또한 동화처럼 들려주는 내레이션은 어린이들이 더욱 쉽게 음악을 이해하고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 시간은 2일 오후 7시 30분, 3일 오전 11시·오후 3시, 4일 오후 3시다.

또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아트워크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이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 회차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베스트셀러 ‘디즈니 인 콘서트’가 2025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광주를 찾는다.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 4인의 생생한 라이브 퍼포먼스, 그리고 10년 넘게 ‘디즈



니 인 콘서트’를 이끌어 온 디토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며 디즈니의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인어공주’, ‘라이온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오랜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명작부터 ‘코코’, ‘모아나’, ‘겨울왕국’ 등 최근 개봉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들까지, 디즈니와 픽사의 주요 작품 주제곡이 심 없이 이어진다.

특히 2024년 개봉 후 누적 국내 관객 약 360만명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모아나 2’의 대표곡들이 라이브 무대로 공개된다. ‘모아나 2’에서 마탕이 역의 한국어 노래 더빙을 맡아 완벽한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배우 이아름의 무대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2023)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으로 실력과 매력을 입증한 송은혜, 뮤지컬계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 김경록, 2023~2024 ‘디즈니 인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관중을 사로잡은 이종석이 출연한다.

공연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ACC, 방과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과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미디어 아티스트’를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B2 미디어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창작 경험을 통

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만남 및 체험’, ‘미디어 아트 작품 제작’, ‘미디어 아트 관련 진로 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영상, 상호작용 아트, 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를 탐색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한다.

먼저 오는 7일 진행되는 첫 번째 수업에서는 미디어 아트의 개념과 다양한 장르를 탐색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 아트 제작에 필요한 다양



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알아보고 기본적인 활용법을 익힌다.

교육 과정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미디어 아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창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5’ 참가하세요

광주문화재단, 내달 16일까지 국내의 역량있는 갤러리 대상

호텔 숙박·런치박스 등 혜택 온라인 마켓·청년 작가 지원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5)에 참여할 국내외 갤러리(화랑)를 5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아트광주25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국내외 역량 있는 갤러리(화랑)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접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참가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소지한 국내외 갤러리(화랑)다. 장르는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서예 등 미술 관련 전 분야다. 접수는 참가신청서 내 부스 타입(S, A, B, C type) 별 구역과 판매가격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하며, 갤러리당 부스는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한다. 참가 부스비 납부, 도록자료 제출 등 추후 일정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트광주25에 참여하는 갤러리(화랑)에게는 행사 기간 내 호텔 숙박, 런치박스, 행사 진행용 비품과 아트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갤러리(화랑)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자리매김한 아트광주25는 2025년 ‘광주 방문의 해’에 맞춰 예술 관광 메인 이벤트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내외 갤러리(화랑) 100곳 이상을 유치하고, 40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미술작품의 유통 활성화와 미술시장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 상설마켓과 청년 작가 지원을 위한 특별 행사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광주국제미술전람회 개최를 위해 국내외 역량 있는 갤러리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